

‘브살렐’로부터의 깨달음
LESSONS FROM A FELLOW NAMED BEZALEL

By Rick Boxx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사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일터와 직장을 떠나 선교사 또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와 다르다. ‘브살렐’이라는 어느 독특한 사람에게서 일과 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집합을 찾아볼 수 있다.

브살렐은 출애굽기 35 장 30-31 절에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출 35:30-31)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표현된 사람은 브살렐이 처음이다. 흥미롭게도 그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었다. 공식적인 ‘종교인’의 신분을 맡은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공예가일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일을 브살렐 혼자서 감당하라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내부를 마무리하는 일에 그를 부르셨고,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다.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가르치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브살렐에게 맡기셨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출 35:34)

브살렐에 관하여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가 장인이자 선생일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다양한 공예에 능숙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조각이나 디자인 등 특정 분야의 일을 맡게 되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Over the years, I have spoken to many businesspeople who mistakenly believe they must leave the marketplace and become missionaries or pastors to do work that would please God. The Bible, however, tells a different story. In an interesting individual named Bezalel, we find an excellent illustration of how God views the intersection of vocation and faith.

He is introduced in Exodus 35:30-31, where we read, *“Then Moses said to the Israelites, ‘See, the Lord has chosen Bezalel ..., and he has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 with wisdom, with understanding, with knowledge and with all kinds of skills.’”* Bezalel was the first person in the Scriptures to be described as being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Interestingly, he was not a priest or a prophet. He held no official “religious” role. Instead, he was a craftsman.

But God was not calling Bezalel to serve on his own. The Lord knew the work He was calling him to accomplish inside the tabernacle, furnishings that would be dedicated to the worship of God, was going to require more people. Someone able to teach others was needed – Bezalel was appointed to lead the way.

“And He has given both Bezalel and Oholiab son of Ahisamak, of the tribe of Dan, the ability to teach others” (Exodus 35:34).

As we read more about Bezalel, we discover he was not only a craftsman and a teacher, but also a *generalist*. He was skilled in many different crafts, while others were called to specific tasks, such as being engravers or designers. *“God has filled them with skill to do all kinds of work as engravers, designers, embroiderers in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and fine linen, and weavers—all of them skilled workers and designers”* (Exodus 35:35). Being a generalist gave Bezalel the capability for being a good teacher for the specialists.

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출 35:35)

브살렐의 박학다식한 면은 다른 전문가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성막 디자인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다. 브살렐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역하면서 그와 일하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훌륭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항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는 장막이 탄생하게 되었다. 브살렐의 탁월한 솜씨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너그럽게 만들었다.

출애굽기 36 장 6 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출 36:6)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이들의 마음에 엄청난 열정과 활력이 차올라 마침내,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필요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이 채워졌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브살렐 이야기는 비록 수천 년 전의 예시이지만, 건물 짓는 일이든, 사업을 성장시키는 일이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척하는 일이든, 또다른 프로젝트에 관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어떻게 동역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명확히 보여준다. 그 일을 위해 목회자나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브살렐을 공예가로 부르셨고, 그 일에 탁월하도록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비롯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직업적 소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탁월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능력 또한 주셨을지도 모른다.

God had given Moses, the leader of the Israelites, intricate designs for how He wanted His tabernacle created. As Bezael co-labored with God, he and others working with him produced excellent results. The outcome was a tabernacle that not only met God's specifications, but also displayed His vision. The excellence of Bezael's craftsmanship moved the people's hearts to extreme generosity.

We read in Exodus 36:6 that Moses said, “No man or woman is to make anything else as an offering for the sanctuary.’ And so, the people were restrained from bringing more, because what they already had was more than enough to do all the work.” Imagine leading an important initiative that inspires such enthusiastic support that you have to say, “Stop! We do not need any more. We have more than enough!”

This example of Bezael is from thousands of years ago, but it clearly shows how God desires for us to partner with Him in His work, whether in constructing a building, growing a business, pioneering a new product or service, or any other project you could conceive. We don't have to become missionaries or pastors to do so.

Consider: God called Bezael to be a craftsman, giving him the ability to do it very well. God has a vocational calling for you – as is true for every one of His followers. If God has blessed you with excellent skills, He might also give you the ability to teach those skills to others. I would encourage you to pray and ask God if He is calling you to *teach* as well as to *do*. Considering your past experiences and skills, are you a generalist or a specialist? To best allocate your time, it helps to know. By combining God's design and your excellent work, you might be amazed at the generous response from others!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선교사, 목사, 또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 직원 같은 '유급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Have you been told – or have you believed – that to engage in work that pleases God, you would have to become a “professional Christian,” being paid to perform some overtly religious role such as a missionary, a pastor, or another vocation directly affiliated with a church or Christian organization? Where do you think this idea came from?

2. 은행원, 의사, 교사, 기업가 또는 기술자 같은 소위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종교 사역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러한가요?

Do you believe a follower of Jesus Christ working in a so-called “secular job,” such as being a banker, a physician, schoolteacher, entrepreneur or engineer, can be just as important to God as jobs that have specifically spiritual objectives? Why or why not?

3. 엄청나게 다양한 기술을 가진 브살렐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복잡한 일을 맡았을 때, 그의 기분은 어떠했을지 상상해보십시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였을까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Try to imagine how Bezalel, a man with wonderfully diverse skills in craftsmanship, must have felt when he was singled out to lead the very complex task of constructing the tabernacle for the Israelites to worship God. What do you think his initial thoughts might have been? Do you think he regarded this as a “holy calling”?

4.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비춰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일에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일지라도, 직업상의 변화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의견을 나눠봅시다.

How do you perceive your current job in terms of God's calling on your life? Do you believe this is what He has called you to do – at least for now? Or do you believe He might be wanting you to make a vocational change, even if it means a very different career? Explain your answer.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잠언 14:23, 18:9; 22:29; 고린도전서 3:9; 에베소서 2:10; 골로새서 3:17,23-24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 (잠 14: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 (잠 18:9)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 (잠 22:29)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 (고전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 (엡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골 3:23-24)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 북미주 KCBMC 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